

# 국내 문헌정보학의 이론 활용 연구 동향 분석

- 2010년-2014년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ory Use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ing 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rom 2010 through 2014

김 성 진 (Sung-jin Kim)\*

### 초 록

본 연구는 이론활용 관점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장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344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된 과거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종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13.7%의 논문에서 평균 2.02회 이론을 활용하였다. 단순언급 수준으로 이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그 다음 이론응용 수준으로 활용되었다. 교육과 정보이용/탐색 주제 영역에서의 이론 활용이 가장 활발하였다. 문헌정보학의 고유 이론은 31.9%, 사회과학 이론은 58.3% 활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과거와 비교하면, 이론활용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연구일수록 이론을 깊이 있게 활용하는 양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론활용 연구가 질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의 고유 이론을 활용하는 비중은 줄고 사회과학 분야, 특히 교육학과 심리학과와의 연관성이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search trends on theory use in Korean LIS, and ultimately to identify its academic growth and chang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with a sample of 344 articles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uring the past five years from 2010 to 2014. Then longitudinal analysis was additionally carried out by comparing with a data set from 1984 to 2003. Findings are as follows. 13.7% of research articles used theories on average 2.02 times. The most theories were deployed at the level of Spot Citing and the next most theories were at the level of Theory Application. Research on the subject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use/seeking used theories most frequently. Theories from LIS were 31.9% and those from social science were 58.3% of all. Also, longitudinal analysis results support the conclusion that there was no quantitative increase but was clear qualitative growth in theoretical research of LIS. And the current theoretical framework of LIS research has closer relationships with pedagogy and psychology among social science disciplines than in the past.

키워드: 이론, 이론활용, 연구동향, 내용분석, 종단분석, 문헌정보학 연구, 이론적 기반

Theory, Theory Use, Theory Deployment, Research Trends, Content Analysis,

Longitudinal Analysi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heoretical Framework

\* 인하공업전문대학 비서과 부교수(sjkim@inhac.ac.kr)

논문접수일자 : 2015년 11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12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179-200,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4.179>]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이론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하면, 이론이란 “의미 있는 현상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위해 검증 가능하도록 단일화된 진술”을 의미한다(김성진 2004). 학자들은 아직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의미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의 진보를 꾀하고 있다. Connaway와 Powell (2010)은 이론을 활용하는 것과 이론을 개발하는 것 모두 학문의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일컬었으며, Pettigrew와 McKechnie (2001)는 이론을 다루는 연구는 연구의 진지함과 존경받을만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박사논문에서 1984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20년 동안의 국내외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활용과 이론개발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학문적 본질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김성진 2004). 이론활용 연구는 25.9%, 이론개발 연구는 21.8%로 이론활용과 이론개발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과거 20년 동안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론 연구는 41.4%로 분석되었다. 실무 중심의 학문적 특성을 갖는 문헌정보학은 당면한 상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연구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론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과거의 분석 결과(Grover and Glazier 1986; Julien 1997)와는 달리, 문헌정보학 연구가 과학적 학문으로의 성장을 위해 고유한 이론체계를 형성하고자 학문과 이론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내의 이론 연구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이론 연구보다 양적·질적으로 모두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와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게재된 이론 연구는 국내보다 이론활용 측면에서 1.7배, 이론개발 측면에서는 1.6배 많았다. 또한 국외 문헌정보학의 연구들은 이론을 배경연구 수준에서 활용하거나 연구설계에 이론을 적용시키는 수준에서 이론을 활용하였다면, 국내의 경우는 이론을 단순히 서론에서 언급하거나 배경연구 수준에서 간단히 설명하는 정도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문헌정보학의 이론 연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이론적 관점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학문의 이론적 기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독자성과 학제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의 이론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이론활용 연구의 양적·질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장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이론 활용 여부, 활용된 이론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수록된 344편의 연구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과거 연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5년간의 분석 데이터와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중심

으로 재추출한 과거 20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이론 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단, 본 연구는 30년간의 국내의 이론활용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본격적인 중단 연구를 실시하기 이전의 기초 연구이다. 그러므로 분석 대상이 학술지 1종으로 국한되어 문헌정보학 이론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정보학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문헌정보학회지』는 국내 문헌정보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로서 최근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활용 동향을 파악하게 해주며, 더 나아가 과거 20년 자료와의 통합을 통해 중단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 선행연구

### 2.1 이론 관점의 동향 분석 연구

문헌정보학 연구의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많으나, 이론을 매개로 한 연구는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표 1>에 나타나듯이 이론활용 측면을 분석

한 연구는 Pettigrew와 Mckechnie(2001), 정동열과 김성진(2003), Kumasi, Charbonneau와 Walster(2013)가 있고, 이론개발 측면을 분석한 연구는 McGrath(2002), 이론활용과 이론개발 두 측면을 모두 다룬 연구는 김성진(2004)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로, Pettigrew와 Mckechnie(2001)는 이론의 범주를 다소 넓게 책정하여 전체 1,160편의 논문 중 34.1%가 이론 활용 연구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론(theory)으로 언급된 것 이외에 개념(conceptual), 체계/framework), 기반(grounded), 토대(underpinning) 등의 단어가 사용된 접근을 모두 포함하였다. McGrath(2002)는 현상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론 정립을 시도하는 연구들을 찾아 주제 영역별로 종속변인, 독립변인, 분석단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주제 영역 내에서 하나의 포괄적인 통합이론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정동열과 김성진(2003)은 국내 환경에서의 이론활용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경우 이론 활용 논문의 비중이 14.7%였고, 평균 1.84개의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정보관리학회지』의 경우는 27.9%의 논문에서 평균 2.09개의 이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

<표 1> 이론적 관점의 내용분석 연구 비교

연구	기간	대상		분석측면
Pettigrew and McKechnie(2001)	1993-1998	6종 학술지	1,160편	이론활용
McGrath(2002)	1990-2001	-	-	이론개발
정동열, 김성진(2003)	1970-1999	2종 학술지	654편	이론활용
김성진(2004)	1984-2003	4종 학술지	1,661편	이론활용/이론개발
Kumasi, Charbonneau, and Walster(2013)	2009-2011	7종 학술지	90편	이론활용

가 김성진(2004)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범위를 넓혀 이론활용과 이론개발 측면을 모두 다루고 국내/국외의 비교, 전통적인 도서관학 분야와 정보학 분야 간의 비교, 시기별 비교, 주제별 비교 등과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가장 최근에 Kumasi, Charbonneau와 Walster(2013)가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이론을 언급하는 행태를 7가지의 유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동열과 김성진(2003), 김성진(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5단계 이론 활용성 모형과 유사하게 이론이 활용되는 양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론 연구의 최소(Minimal) 수준으로 참고문헌없이 이론명만 간단히 위치시키는 Theory Positioning, 이론을 잠시 언급하는 Theory Dropping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moderate) 수준에는 다양한 이론을 언급하여 설명하는 Theory Diversification, 이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Theory Conversation 단계를, 최대(major) 수준에는 이론을 적용시키는 Theory Application, 이론을 평가하는 Theory Testing, 이론 개발을 시도하는 Theory Generation 단계를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각 단계에 속하는 이론 활용 연구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이론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론 활용 수준에 대한 양적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론 활용 양상에 대한 동향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 활용 양상에 대한 동향 및 시대별 추이 파악이 가능하도록 양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Kumasi, Charbonneau와 Walster(2013)처럼 이론이 활용되는 양상

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질적 접근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론활용 연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2 내용분석의 종단연구 설계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대표적인 국외 연구에는 1965년부터 2005년까지 40년 동안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한 Tuomaala, Järvelin과 Vakkari(2014)의 연구와 정보이용자연구 분야에서 25년 동안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Julien, Pecoskie와 Read(2011)의 연구가 있다.

우선 Järvelin과 Vakkari(1990)는 가장 처음에 1985년도의 문헌정보학 핵심 저널에 실린 논문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그 다음 Järvelin과 Vakkari(1993)의 연구에서 1965년도의 논문을 추가 분석하여 1965년과 1985년, 즉 20년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Tuomaala, Järvelin과 Vakkari(2014)의 최근 연구에서 2005년도 논문을 추가 분석함으로써 총 40년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분석대상이 되었던 학회지의 발행이 중단되거나 새롭게 발간된 학회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분석대상이 조금씩 변동되기는 하였지만 분석에 사용된 기준은 가급적 동일하게 적용하여 종단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Julien(1997)은 가장 처음에 1990년에서 1994년까지 5년간 정보이용자연구 분야의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후 Julien과 Duggan(2000)은 1984년에서 1989년 그리고 1995년에서 1998년 데이터를 추가하여

총 15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Julien, Pecoskie와 Read(2011)에서는 1999년부터 2008년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총 25년간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도 20년 이상에 걸쳐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있었다. 강미희와 김정현(2014)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1974년부터 2013년까지 40년간 수록된 1,365편의 논문을 내용분석하여 연구주제, 공동연구 현황, 연구비지원 유무, 연구자 소속 지역 등의 항목을 파악하였다. 오세훈과 이두영(2005)은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 『정보관리학회지』에 게재된 정보학 영역의 논문 302편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제, 간행시기, 인용문헌의 주제 및 나이 등을 파악하였다. 이외에 국내 문헌정보학 석·박사 학위논문의 50년 동향을 분석한 시도도 있었다. 우선 손정표(2003)가 1959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기별 학위논문 주제를 분석하였고, 이를 뒤이어 송정숙(2010)이 손정표의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 코드를 적용하여 2001년에서 2010년까지의 학위논문을 추가 분석하였다.

이처럼 종단연구는 대부분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나 등간격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하나의 연구에서 20년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도 있었지만 짧게는 1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비교 분석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 치의 데이터를 조사하여 과거 20년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되, 추후에 누락된 년도의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여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계획이다.

### 3. 연구의 설계

#### 3.1 이론 판단 기준

이론 활용 연구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판단 여부를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결정하였다.

첫째, 이론 여부 판단은 논문 저자들의 관점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였다. 즉, 저자가 이론(theory), 모형(혹은 모델, model), 법칙(law) 등으로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이론 여부 판단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예시 1]처럼 저자가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모델'이라고 직접적으로 칭한 경우는 이론 활용으로 간주되나, [예시 2]처럼 Kuhlthau의 모형이 발표된 1993년도 원문을 인용하면서 핵심개념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논문 저자가 그 개념을 '이론(혹은 모형, 법칙)'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론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예시 1] “인식론적인 신념은 주제, 중재인의 이용, 탐색기법, 정보의 평가와 권위를 인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 모델에서 여러 단계, 즉 주제 선정, 주제형성 이전단계, 주제형성 단계와 수집단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47권 2호 p.77)

[예시 2] “한편 정보검색에 관한 연구는 이용자가 정보검색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인지작용과 행동에 착목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Kuhlthau(1993)는 정보검색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에서 출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봤다.” (47권 1호 p.182)

둘째, 이론이 발표된 원문헌을 확인하고, 학술DB 및 검색엔진 검색을 통해 타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론 여부를 정교화 하였다. 타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으로 인정된 경우는 'OO의 OO이론' (예: Belkin의 ASK이론)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로 불리거나 인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연구결과를 자기인용하며 이론(혹은 모형, 법칙)이라 칭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타 연구자의 인정에 도달한 공식이론 수준의 이론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혹은 모형, 법칙)을 일반명사처럼 사용한 경우도 제외하였다. [예시 3]은 고유명사 형태로 이론이 언급되고 활용되어 본 연구에서 이론으로 채택된 예를 보여준다. 반면에 [예시 4]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언급되었지만 특정 이론을 칭하기보다 구성주의 관점의 교수학습이론을 총칭하는 집합명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예시 3]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위한 질문지 설계와 자료분석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Dervin의 의미형성이론(Sense-Making: SM), Engeström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 AT), Savolainen의 일상생활 정보추구이론(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ELIS)을 사용하였다.” (46권 3호 p.107)

[예시 4] “이러한 관점은 지식의 전달을 강조하는 전통적 교육방법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교수 학습에 있어 구성주의 학습 이론(constructivist theories of learning)으로 발전해왔다(Slavin 1997). 구성주의에 있어 지식

(knowledge), 의미(meaning)란 고정되고 완료된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습득되는 것으로 의미되어 진다.” (47권 1호 p.183)

셋째, 연구의 개념체계로 활용되기보다 도구적 성격이 강한 통계기법, 지수/지표(index), 공식(formular), 척도(measure) 등과 현상 간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동의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규칙(rule) 및 원칙(principles)은 이론의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서비스 품질 평가도구인 SERVQUAL, 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도구인 LibQUAL+, 도서관 불안 측정도구인 Bostick의 LAS(Library Anxiety Scale) 등이 평가도구로 활용된 경우는 이론 활용 연구로 간주하지 않았다. 다만, [예시 5]와 같이 SERVQUAL, LibQUAL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한 경우는 이론으로 채택하였다.

[예시 5]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LibQUAL 모형(Cook and Heath 2001; Cook and Thompson 2001; Thompson, Cook, and Thompson 2002), SERVQUAL 모형(Parasuraman, Zeithamal, and Berry 1985; Parasuraman, Zeithamal, and Berry 1988), SERVPERF 모형(Cronin and Taylor 1992)에서 찾을 수 있다.” (46권 4호 p.7)

### 3.2 이론 활용 수준

이론 활용 연구에서 이론이 어떤 수준으로, 어떤 양상으로 채택되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

해 본 연구는 정동열, 김성진(2003)에서 제시된 5단계의 이론 활용성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 모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이론 활용인 단순언급 수준에서부터 배경연구, 이론검토, 이론응용,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분석평가 단계로 구성되는 서열척도의 개념이다.

보다 구체적인 이론 활용 수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단순언급(Spot Citing)' 수준은 이론에 대한 설명 없이 이론명만을 언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는 연구와 관련된 이론의 존재를 단순히 알리기 위한 것으로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에서 한두 단어로 간단히 소개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론의 원문헌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단계 '배경연구(Background Review)' 수준은 이론적 배경을 분석할 때 관련된 이론에 관한 핵심적인 개념이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경우이다. 주로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한 문단 혹은 그 이상의 분량으로 설명되어지며 이를 위해 이론의 출처인 원문헌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단계 '이론검토(Theory Discussion)' 수준은 특정 주제에 관한 여러 이론들의 개념 및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경우이다. 여러 이론들을 비교 분석하거나 리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4단계 '이론응용(Theory Application)' 수준은 이론을 연구설계의 중요한 개념적 기반으로 직접 적용한 경우로, 연구방법 혹은 연구결과 해석에 이론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5단계 '분석평가(Analytical Evaluation)' 수준은 특정 이론이 연구 전반에 걸쳐 깊이 있게 분석되고 평가되는 경우이다. 이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 3.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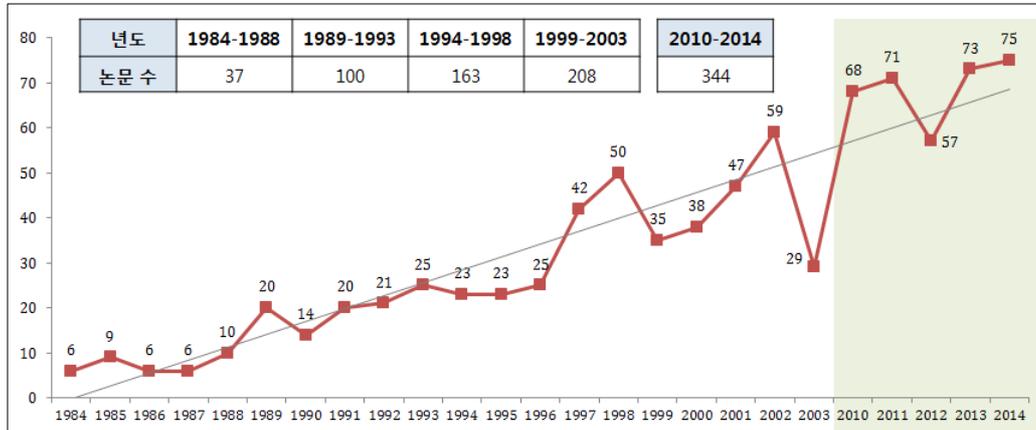
문헌정보학 이론활용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설계의 기초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선정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게재된 연구논문 344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344편의 연구논문에 대해 이론여부를 판별하고, 이론활용수준을 판단하는 것 이외에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코드들도 과거의 연구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전체 분석 대상의 10%인 34편의 논문을 추출하여 코더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이론 판단의 경우는 94%, 연구주제 판단은 91%, 연구방법 판단은 94%의 일치율을 보였다. 내용분석 결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icrosoft Access에 입력·처리되어 분석되었다.

## 4. 분석 결과

### 4.1 일반적인 연구동향

최근 5년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은 344편으로, 1년에 평균 68.8편의 연구논문이 생산되었다. <그림 1>에서 과거 20년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7.4편, 1990년대 초반에 연평균 20편, 1990년대 후반에 연평균 32.6편, 200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41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문헌정보학



〈그림 1〉 연도별 게재 논문 수 추이

의 연구논문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도서관경영' 분야였으며, '교육' 14.8%, '분류/목록' 10.8%, '정보제공서비스' 10.5%, '정보이용/탐색' 9.3% 순이었다(〈표 2〉 참조). 과거 20년과 비교하였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5위 내에 속한 연구주제가 최근 5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세부주제별 분포 순위가 다소 변하기는 하였으나 주 연구영역의 큰 틀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연구영역의 하나인 '도서관경영'과 '일반' 주제 영역의 논문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자동화/디지털도서관, 인터넷/웹/전자정보원, 시스템/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논문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구 활동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연구논문들은 정보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에 주로 게재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논문에 적용된 연구방법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32.86%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사례연구(10.2%), 내용분석(9.92%) 순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표 3〉 참조).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30여 년 동안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조사연구가 변함없이 가장 많이 수행됨을 알 수 있으며, 사례연구 및 모형/알고리즘개발 연구도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헌연구는 26.8%에서 6.8%로 그 분포가 감소하였다. 본 분류체계에서 문헌연구란 타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고 문헌분석만을 수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연구들이 문헌분석 이외에 다른 연구방법을 추가하여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 시스템분석설계, 실험연구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이러한 방법론을 주로 적용하는 정보학 분야(시스템, 디지털도서관, 인터넷 등)의 논문 수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 2〉 연구주제별 논문 분포

연구주제	현재 (2010-2014)			과거 (1984-2003)		
	논문수	비율	순위	논문수	비율	순위
도서관경영	56	16.3%	1	50	9.8%	3
교육	51	14.8%	2	57	11.2%	2
분류/목록	37	10.8%	3	63	12.4%	1
정보제공서비스	36	10.5%	4	43	8.5%	4
정보이용/탐색/이용자연구	32	9.3%	5	32	6.3%	5
일반	18	5.2%	6	9	1.8%	17
출판/저작권	12	3.5%	7	13	2.6%	15
정보자원관리	12	3.5%	7	20	3.9%	11
네트워크	12	3.5%	7	21	4.1%	10
학술커뮤니케이션	12	3.5%	7	26	5.1%	8
정보검색	11	3.2%	11	17	3.3%	14
서지학	10	2.9%	12	20	3.9%	11
시스템/데이터베이스	8	2.3%	13	27	5.3%	7
색인/조록	8	2.3%	13	10	2.0%	16
기록학	8	2.3%	13	6	1.2%	19
전문직	6	1.7%	16	20	3.9%	11
인터넷/웹/전자정보원	5	1.5%	17	29	5.7%	6
계량정보	5	1.5%	17	3	0.6%	21
역사	4	1.2%	19	9	1.8%	17
자동화/디지털도서관	1	0.3%	20	25	4.9%	9
연구방법론	-	-	-	6	1.2%	19
기타	-	-	-	2	0.4%	22
합 계	344	100%	-	508	100%	-

〈표 3〉 연구방법별 논문 분포

연구방법	현재 (2010-2014)			과거 (1984-2003)		
	논문수	비율	순위	논문수	비율	순위
조사연구	116	32.86%	1	149	29.0%	1
사례연구	36	10.20%	2	10	1.9%	11
내용분석	35	9.92%	3	50	9.7%	3
모형/알고리즘개발	31	8.78%	4	4	0.8%	12
평가연구	26	7.37%	5	21	4.1%	7
문헌연구	24	6.80%	6	138	26.8%	2
논증적연구	22	6.23%	7	21	4.1%	7
실험연구	21	5.95%	8	34	6.6%	4
계량정보학적연구	12	3.40%	9	17	3.3%	9
서지학적연구	10	2.83%	10	23	4.5%	6
역사적연구	8	2.27%	11	16	3.1%	10
트랜잭션로그분석	7	1.98%	12	2	0.4%	13
시스템분석설계	5	1.42%	13	29	5.6%	5
합 계	353*	100%	-	514*	100%	-

\* 중복체크되어 논문수에 차이가 있음

#### 4.2 이론 활용의 양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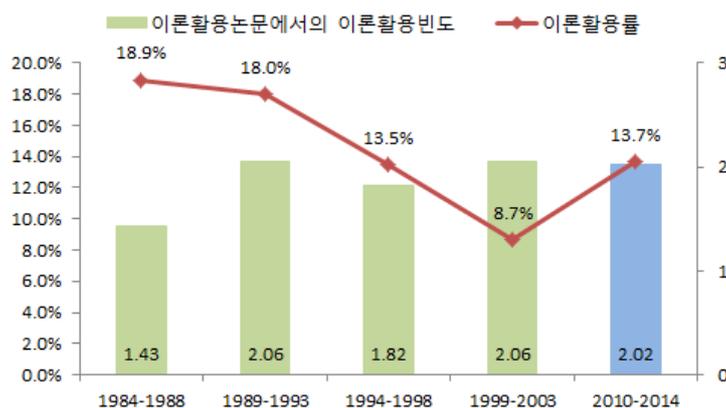
최근 5년 동안 344편의 논문 중 47편의 논문에서 총 95회 이론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에 나타나듯이 연도별로 이론활용 논문 수 및 이론활용빈도)에 고저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연구에 대한 이론활용률은 13.7%이며 이론활용 논문 당 평균 2.02회의 이론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거 20년의 이론 활용률을 함께 살펴보면

(<그림 2> 참조), 1984년-1988년의 이론 활용률이 18.9%로 가장 높았고 점점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2003년에 8.7%로 이론활용 논문 수가 가장 작아지면서 전체 평균 12.8%를 기록하였다. 또한 과거 20년의 이론활용 빈도도 이론활용 논문 한편 당 1.43건에서 2.06건으로 평균 1.91회였다. 그러므로 최근 5년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 활용 행위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예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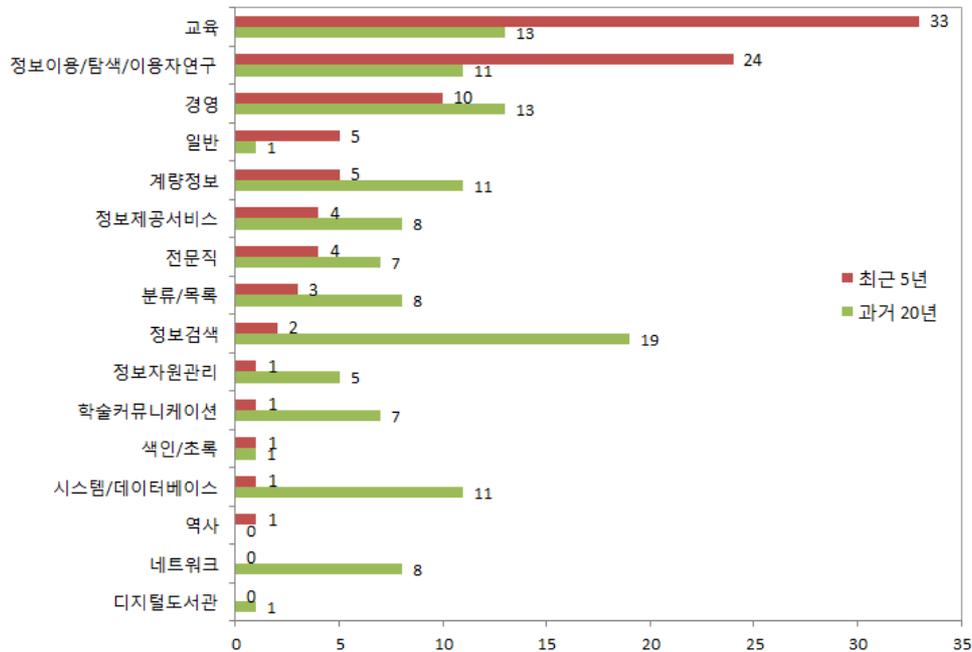
<표 4> 연도별 이론활용 분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평균
논문수	68	71	57	73	75	344
이론활용 논문수	9	12	14	6	6	47
이론활용빈도	16	16	31	19	13	95
이론활용률	13.2%	16.9%	24.6%	8.2%	8.0%	13.7%
이론활용논문에서의 이론활용빈도	1.78	1.33	2.21	3.17	2.17	2.02
전체 논문에서의 이론활용빈도	0.24	0.23	0.54	0.26	0.17	0.28



<그림 2> 연도별 이론활용률 및 이론활용빈도

1) 이론활용빈도는 이론 개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조사된 5년 동안의 이론활용빈도는 95회이고 활용된 이론의 개수는 76개이다. 이론 개수는 이론 목록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개념이고, 이론활용빈도는 이론활용 건수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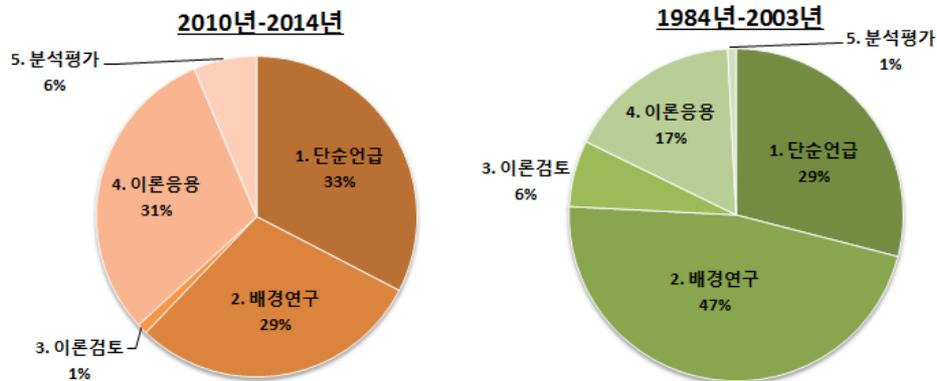
〈그림 3〉 연구주제별 이론활용빈도 분포

연구주제별 이론활용 빈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교육’과 정보이용/탐색/이용자연구’ 주제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론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교육 주제 영역에는 문헌정보학 학부/대학원 교과과정, 도서관 이용자 교육, 독서지도 및 정보활용능력에 관련된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이용/탐색 주제영역에는 정보이용, 도서관이용, 정보탐색행위 등의 이용자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일반 주제영역의 이론활용이 증가하였으며, 정보검색, 시스템/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영역의 이론활용 빈도는 낮아졌다. 다만 이는 정보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정보학 중심의 학회지에 주로 게재되어 정보학 중심의 연구논문이 많이 분석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4.3 이론 활용의 질적 동향

본 연구에서는 이론활용의 5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이론의 활용 양상 및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나듯이 최근 5년간의 이론활용 수준을 살펴보면, 어떠한 설명 없이 이론명만을 언급하는 단순언급 수준이 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론을 연구의 기반으로 채택하는 이론응용 수준이 30.5%,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이론을 다루는 배경연구 수준이 29.5% 차지하였다. 즉, 5단계의 이론활용 중에서 단순언급, 이론응용, 배경연구의 세 가지 양상을 가장 많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20년의 이론활용 양상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과거에는 배경연구 수준으로 이론을 활용



〈그림 4〉 이론활용 수준의 분포 비교

하는 행태가 주목할 만하게 많았으나 최근의 이론활용 연구에서는 배경연구 수준이 46.8%에서 29.5%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둘째, 과거에 17%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론응용 수준의 이론 활용이 최근 5년 동안 16.9%에서 30.5%로 2배가량 급증하였다. 셋째, 분석평가 수준의 이론활용이 0.8%에서 6.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이론을 연구의 설계 및 분석의 기반으로 삼거나 이론 자체를 평가하는 깊이 있는 이론활용 연구 활동이 증가함으로써 이론활용 연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론이 활용된 수준을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박희진(2011)은 폭소노미에 따른 웹 분류를 연구하면서 이용자들의 태깅 행위를 Pirolli와 Card의 정보채집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Pirolli와 Card의 이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정보채집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Pirolli와 Card의 정보채집이론을 4단계인 이론응용 수준으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이론적 배경에서 웹 정보탐색 행동의 패턴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설명하

는 과정에서 적응적 사고특성(ACT)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한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경우 Anderson의 적응적 사고특성(ACT) 모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참고문헌도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1단계인 단순언급 수준으로 활용된 것이다.

2단계의 배경연구 수준으로 언급된 예를 살펴보면, 임여주(2012)는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사서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학습만화에 대한 정의를 다루었다. 이 때 Rosenblatt의 독서 거래이론이 한 단락 이상으로 설명되었다. 이론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그림, 참고문헌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단순언급 수준과 구분된다.

Todd(2010)는 정보활용능력에 관한 논문에서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을 3단계 이론검토 수준으로 다루었다. Dervin의 의미형성 이론 이외에 정보활용능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담론들을 다루며 연구결과들이 지식, 즉 이론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지식의 수준에 오른 모형으로 Kuhlthau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Kuhlthau의

모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특징을 연구배경 부분과 연구결과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의 분석평가 수준의 예를 살펴보면, 김현희(2012)는 이용자 태그를 활용한 비디오 스포치 요약의 자동 생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Goldstein 등의 수정된 MMR(Maximum Marginal Relevance)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MMR 모형 및 수정된 MMR 모형에 대한 설명, 이 모형에 기반한 연구설계, 연구결과에 기반한 모형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분석평가 수준으로 이론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4 활용된 이론 동향

최근 5년간 344편의 문헌정보학 연구논문에서 활용된 이론의 개수는 총 72개로 조사되었다. 이론활용 논문이 총 47편이었으므로 1편 당 1.5개의 이론을 활용하였으며, 전체 이론 활용 빈도가 95회였으므로 이론 1개당 1.32회씩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 20년 동안 508편의 연구논문에서 이론활용 논문 1편 당 1.09개의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총 71개의 이론이 활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보다 활발한 이론 활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이론이 집중적으로 활용되기보다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론이 연구에 적용된 것을 보여준다. 이론의 활용빈도를 살펴보면 62개의 이론은 각 1회씩만 활용되었고, 2회 이상 활용된 이론은 <표 5>와 같이 총 10개에 불과하였다.

특히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과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이 8회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Dervin의 의미형성이론이 3회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는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Cook과 Heath의 LibQUAL 모형, Eizenberg와 Berkowitz의 Big 6 모형, Freud의 정신분석이론, Jung의 분석심리이론, Parasuraman 등의 SERVQUAL 모형, Savolainen의 일상생활정보추구 이론 등이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과거 20년의 경우에는 총 71개 이론 중 2회 이상 활용된 이론이 26개로 <표 6>과 같다. Shannon과 Weaver의 정보 이론이 8회 활용되었고, Bradford의 분산법칙과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표 5> 2010년-2014년 2회 이상 활용된 이론 목록

No	이론명 (빈도/이론명순)	빈도
1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8
2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	8
3	Dervin의 의미형성 이론	3
4	Bandura의 사회학습 이론	2
5	Cook & Heath의 LibQUAL 모형	2
6	Eizenberg & Berkowitz의 Big 6 모형	2
7	Freud의 정신분석 이론	2
8	Jung의 분석심리 이론	2
9	Parasuraman 등의 SERVQUAL 모형	2
10	Savolainen의 일상생활정보추구 이론	2

〈표 6〉 1984년-2003년 2회 이상 활용된 이론 목록

이론명 (빈도/이론명순)	빈도	이론명 (빈도/이론명순)	빈도
Shannon & Weaver의 정보이론	8	Cameron의 조직유효성 모형	2
Bradford의 분산 법칙	5	Cronin & Taylor의 서비스성과 모형	2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5	Davis의 기술수용 모형	2
Dervin의 의미형성 이론	4	Fiedler의 상황 이론	2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4	Gronroos의 서비스 질 모형	2
Ranganathan의 분류3단계 이론	4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	2
Von Bertalanffy의 일반시스템 이론	4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	2
Zipf의 최소노력 법칙	4	Merton의 기능구조주의 이론	2
Berge의 그래프 이론	3	Parasuraman 등의 SERVQUAL 모형	2
Bliss의 지식의 조직화 이론	3	Salton의 벡터공간 모형	2
Burton & Kebler의 이용률감소 법칙(반감기)	3	Swets의 E-척도 모형	2
Eizenberg & Berkowitz의 Big 6 모형	3	Taylor의 질문협상 이론	2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	3	Wilson의 정보행위 모형	2

은 각 5회, Dervin의 의미형성이론,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Ranganathan의 분류3단계 이론, Von Bertalanffy의 일반시스템 이론, Zipf의 최소노력법칙은 각 4회씩 활용된 주요 이론이었다. 최근 많이 활용된 이론 목록과 비교하였을 때,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Dervin의 의미형성이론, Eizenberg와 Berkowitz의 Big 6 모형, Parasuraman 등의 SERVQUAL 모형이 과거에 이어 최근에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8회 인용된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의 경우, 정보이용/탐색 주제영역의 논문 5편과 교육 주제영역의 논문 3편에서 활용되었다. 1단계의 단순언급 수준으로 다루어진 것이 5번이었으며 3단계의 이론검토 수준으로 1회, 4단계의 이론응용 수준으로 1회, 5단계의 분석평가 수준으로 1회 다루어졌다. 주로 단순언급 수준으로 활용되었으나, 깊이 있게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을 5

단계 분석평가 수준으로 다룬 이지수(2013)는 그룹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올린 온라인 토론 게시물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협동적 정보행태를 연구하였다. 협동적 정보행태와 정서적 측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Kuhlthau의 모형을 적용하고 그룹원이 필요로 하는 협동과 지원의 유형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Yue와 He의 CIB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Kuhlthau의 모형과 Yue와 He의 모형이 그룹 연구 정보행태를 연구하는데 적합한 모형임을 평가하였다. 이지수(2013)의 연구에서 Kuhlthau의 모형과 Yue와 He의 모형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두 모형에 대한 언급은 논문초록, 키워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결론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Kuhlthau의 모형을 4단계 이론응용 수준으로 다룬 Na(2014)는 웹 탐색에 있어서 정신적 요구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Think-aloud 기법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제한된 작업 기

역을 가지고 학습하므로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Miller의 인지부하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Kuhlthau의 모형을 실험 및 사후인터뷰의 내용을 코딩하고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따라서 Kuhlthau의 모형은 3장 연구설계 부분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며 언급되었으며 이 모형에 기반한 코딩체계도 함께 제시되었다.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의 경우는 일반 영역의 논문 4편, 역사 1편, 분류/목록 1편, 도서관경영 1편, 시스템/데이터베이스 영역의 논문 1편으로 여러 주제 분야에 걸쳐 활용되는 특성을 보였다. 단순언급 수준으로 1회, 배경연구 수준 2회, 이론응용 수준 2회, 분석평가 수준으로 3회 적용되면서, 이론 활용성이 평균 3.5 이상으로 다소 깊이 있게 활용되는 이론으로 나타났다.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이 빈번히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루어진 이유는 1931년에 발표된 이 법칙의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헌정보학회가 2011년 10월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권 4호(2011년 12월)와 46권 1호(2012년 3월)에 이 법칙을 다루는 논문이 총 6편 게재되었으며 이 법칙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이므로 활용수준도 이론응용 혹은 분석평가 수준으로 높았다.

가장 활용수준이 높은 사례로, Babu(2011)는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이 현재의 도서관계에도 적합한지를 분석 평가하였다. Ranganathan 박사에게 대한 소개와 도서관학 5법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도서관학 5법칙이 현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

루었으므로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에 걸쳐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을 다루고 있다. 그 외에 Yoon(2011)과 Takeuchi(2011)는 한국과 일본 각각의 도서관계에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을 적용시켜 해석하고 평가하였으며, Kumar, Babu와 Rao(2011)는 Ranganathan의 콜론분류법에 그의 도서관학 5법칙을 적용하여 해석하면서 이론응용 수준으로 이론을 활용하였다.

#### 4.5 활용된 이론의 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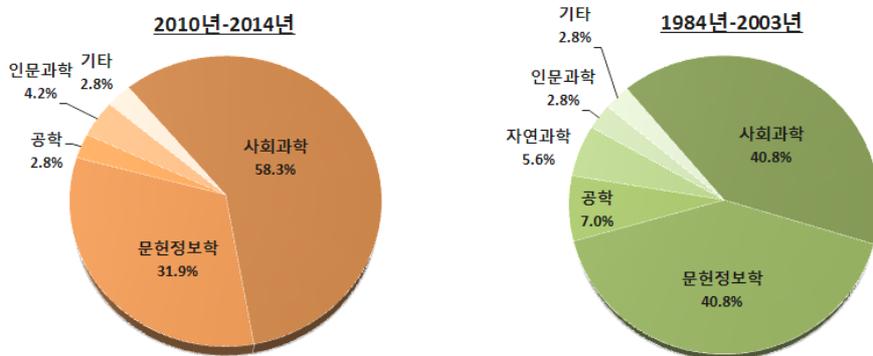
최근 5년간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활용된 이론 72개의 근원 학문분야를 살펴본 결과, 문헌정보학 학자들이 개발한 고유 이론은 23개로 전체 활용된 이론의 31.9%를 차지하였고,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은 42개로 58.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7〉 참조). 특히 사회과학 분야 중에서도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이론이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각 20.8%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5〉에 나타나듯이 과거에는 활용된 71개의 이론 중 문헌정보학 분야의 이론이 전체의 40.8%(29개) 이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도 동일한 40.8%의 수준으로 활용되었으며 사회과학 내의 세부학문을 살펴보면 경영학 분야의 이론이 12개로 16.9%, 심리학 이론이 14.1%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즉, 최근 들어 문헌정보학 고유의 이론 활용은 감소하고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활용은 증가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는 사회과학 영역 중 심리학의 이론을 많이 활용해왔으며, 최근

〈표 7〉 활용 이론의 근원 분포

이론근원	세부근원	N(%)		N(%)	
사회과학	교육학	15	(20.8)	42	(58.3)
	심리학	15	(20.8)		
	경영학	8	(11.1)		
	경제학	1	(1.4)		
	사회학	1	(1.4)		
	커뮤니케이션학	1	(1.4)		
	행동과학	1	(1.4)		
문헌정보학		23	(31.9)	23	(31.9)
인문과학	영문학	1	(1.4)	3	(4.2)
	언어학	1	(1.4)		
	철학	1	(1.4)		
공학	언어공학	1	(1.4)	2	(2.8)
	컴퓨터공학	1	(1.4)		
기타	예술	1	(1.4)	2	(2.8)
	의약학	1	(1.4)		
합계		72	(100)	7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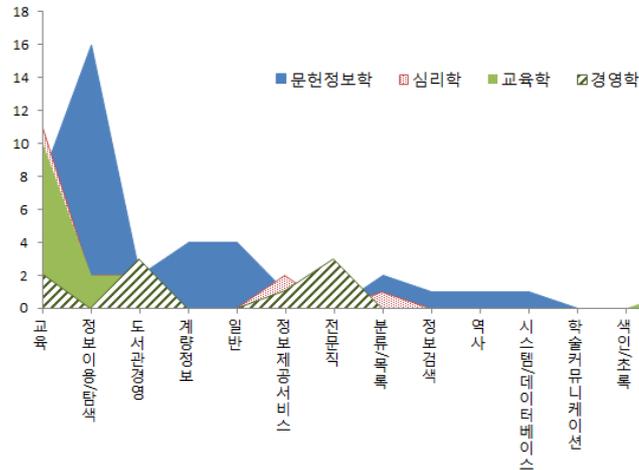
〈그림 5〉 이론의 근원 분포 비교

들어서는 교육학 분야 이론에 대한 활용이 급증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개의 주제영역 중에서 문헌정보학의 고유 이론을 주로 활용한 분야는 정보이용/탐색, 계량정보, 일반 영역이었다. 반면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을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교육 영역, 도서관경영, 전문직 관련 연구였다. 〈그림 6〉에

나타나듯이 교육 관련 연구는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도서관경영과 전문직 관련 연구는 경영학의 이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 사용된 문헌정보학의 고유 이론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최근 5년간의 23개 이론과 과거 20년간의 29개 이론



〈그림 6〉 연구주제별 활용 이론의 근원 분포

〈표 8〉 문헌정보학 분야의 고유 이론 목록 비교

문헌정보학 분야 이론명 (빈도)	
2010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tes의 팔기따기 모형 (1)</li> <li>• Belkin 등의 ISS 모형 (1)</li> <li>• Belkin의 ASK 이론 (1)</li> <li>• Bial 등의 디지털도서관 어린이정보이용행위 모형 (1)</li> <li>• Bradford의 분산 법칙 (1)</li> <li>• Cook &amp; Heath의 LibQUAL 모형 (2)</li> <li>• Eizenberg &amp; Berkowitz의 Big 6 모형 (2)</li> <li>• Ellis의 8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1)</li> <li>• Garfield의 인용집중 법칙 (1)</li> <li>• Irving의 정보활용 9단계 모형 (1)</li> <li>•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8)</li> <li>•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1)</li> </ul>
1984 ~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llon의 도서관불안 이론 (1)</li> <li>• Price의 제공근 법칙 (1)</li> <li>• Ranganathan의 도서관학 5법칙 (8)</li> <li>• Raqi &amp; Zainab의 비선형정보전략모형 (1)</li> <li>• Savolainen의 일상생활정보추구 이론 (2)</li> <li>• Shatford의 패시매트릭스 모형 (1)</li> <li>• Shenton의 정보탐색행위실체 모형 (1)</li> <li>• Stripling &amp; Pitts의 REACTS 모형 (1)</li> <li>• Wilson &amp; Walsh의 수정된 정보행위 모형 (1)</li> <li>• Wilson의 정보행위 모형 (1)</li> <li>• Yue &amp; He의 협동적 정보행태 모형 (1)</li> </ul>
2010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en의 시스템설계 5단계 모형 (1)</li> <li>• Applegate의 이용자만족도 모형 (1)</li> <li>• Bates의 팔기따기 모형 (1)</li> <li>• Belkin의 ASK 이론 (1)</li> <li>• Bliss의 지식의 조직화 이론 (3)</li> <li>• Bookstein &amp; Swanson의 자동색인확률 모형 (1)</li> <li>• Bookstein의 계량정보학적 대칭 모형 (1)</li> <li>• Bradford의 분산 법칙 (5)</li> <li>• Brookes의 브래드포드법칙 일반화 이론 (1)</li> <li>• Burton &amp; Kebler의 이용률감소 법칙 (1)</li> <li>• Choo의 인터넷정보탐색행위 모형 (1)</li> <li>• Dillon의 시스템설계 5단계 모형 (1)</li> <li>• Eizenberg &amp; Berkowitz의 Big 6 모형 (3)</li> <li>• Ellis의 8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1)</li> <li>• Goffman의 전염 이론 (1)</li> </ul>
1984 ~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rter의 검색전략 모형 (1)</li> <li>•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4)</li> <li>•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5)</li> <li>• Mahling의 시스템설계 6단계 모형 (1)</li> <li>• Marchionini의 5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1)</li> <li>• Markey &amp; Cochrane의 검색전략 모형 (1)</li> <li>• Ranganathan의 분류3단계 이론 (4)</li> <li>• Rouse의 도서관네트워크 모형 (1)</li> <li>• Sparck Jones의 역문헌빈도 이론 (1)</li> <li>• Stripling &amp; Pitts의 REACTS 모형 (1)</li> <li>• Swets의 E-척도 모형 (2)</li> <li>• Taylor의 부가가치 모형 (1)</li> <li>• Taylor의 질문협상 이론 (2)</li> <li>• Wilson의 정보행위 모형 (2)</li> </ul>

〈표 9〉 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이론 목록

심리학 분야 이론명 (빈도)	교육학 분야 이론명 (빈도)
•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 (1)	• Astin의 학생참여 이론(학생성과 모형) (1)
• Allport의 특성론 (1)	• Bransford 등의 상황적 학습 모형 (1)
• Anderson의 ACT(적응적사고특성) 모형 (1)	• Collins 등의 인지적 도제이론 (1)
•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자기효능감) (2)	• Dick & Carey의 ADDIE 모형 (1)
• Berlynes의 인간호기심 이론(각성이론) (1)	• Engeström의 활동이론 (1)
•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 (1)	•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 (1)
• Costa & McCrae의 성격유형 5요인 모형 (1)	• Garrison의 자기주도학습의 통합적 모형 (1)
• Freud의 정신분석이론 (2)	• Havighurst의 활동이론 (1)
• Guilford의 지능구조 모형 (1)	• Mathewson의 독서태도 모형 (1)
• Jung의 분석심리이론 (2)	• McKenna의 독서태도 모형 (1)
• Kaplan & Kaplan의 환경선호 모형 (1)	• Meeker 등의 SOI-LA 모형 (1)
• Kelly의 개인구성개념 이론 (1)	• Nelson의 협력적 문제해결 교수이론 (1)
• Miller의 인지부하이론 (1)	• Rosenblatt의 독서 거래이론 (1)
• Murray의 욕구및동기 이론 (1)	• Slavin의 협동학습 이론 (1)
• Weiner의 귀인이론(학습동기부여이론) (1)	• Spiro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 (1)

중에서 겹치는 것은 총 8개로, Bates의 딸기따기 모형, Belkin의 ASK 이론, Bradford의 분산법칙, Eizenberg와 Berkowitz의 Big 6 모형, Ellis의 8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Kuhlthau의 6단계 정보탐색과정 모형, Lotka의 저자생산성 법칙, Wilson의 정보행위모형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사용된 문헌정보학의 이론 중 비교적 최근 발표된 이론은 Yue와 He의 협동적 정보행태 모형(2010년), Raqi와 Zainab의 비선형 정보전략 모형(2008년), Bial 등의 디지털도서관 어린이정보이용행위 모형(2008년), Shenton의 정보탐색행위실패 모형(2007년), Cook과 Heath의 LibQUAL 모형(2001년) 등이 있었다.

또한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활용된 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이론은 〈표 9〉와 같다. 심리학의 15개 이론 중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 Freud의 정신분석이론, Jung의 분석심리이론이 2번씩 활용되었고 나머지는 1회씩 활용되었다. 교

육학 분야의 이론 15개는 모두 각각의 논문에서 1회씩 활용되고 있었다. 즉,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는 타 분야의 특정 이론에 치우치거나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적용하여 문헌정보학의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이론활용 관점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이론 연구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장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344편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4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된 과거 연구결과

와의 비교를 통해 중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양적, 질적, 학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에서 이론활용 연구의 비중은 과거 20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했으나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다. 과거에 12.8%의 논문에서 평균 1.91회 이론을 활용했다면, 최근 5년 동안에는 13.7%의 논문에서 평균 2.02회 이론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연도별로 이론활용 연구의 비중 및 평균 활용빈도에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연구논문의 생산성과 비례하는 지속적인 양적 성장 추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다만 이론활용 수준의 분석을 통해 이론활용 연구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2단계 배경연구 수준으로 이론을 주로 활용하였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론을 연구의 기반으로 직접 활용하고 이론의 확장을 위해 분석 및 평가하는 4단계 및 5단계 수준의 활용 행태를 많이 보였다.

셋째,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31.9%가 문헌정보학 고유의 이론이었고, 58.3%가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이었다. 문헌정보학 고유 이론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40.8%에서 31.9%로 줄고 사회과학 이론의 비중은 40.8%에서 58.3%로 증가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학제성이

커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의 이론에 대한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헌정보학의 세부주제영역에 따라 활용하는 이론의 근원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론 활용이 가장 활발했던 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심리학과 교육학의 이론을 활용하였고, 정보이용/탐색 관련 연구들은 문헌정보학 고유의 이론을 적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리고 도서관경영 및 전문직 관련 연구들은 경영학 분야의 이론을, 계량정보, 일반 영역의 연구들은 문헌정보학 고유 이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국내 문헌정보학 연구의 이론활용 특성 분석 및 과거와의 비교 분석은 중단 연구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내의 문헌정보학 연구로 분석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분석기간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문헌정보학의 이론적 기반의 변화 및 성장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에 있다. 또한 향후에는 특정 주제영역별로 이론적 기반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동향 파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이론개발 및 이론활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관점에서 학문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이론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미희, 김정현.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 김성진. 2004. 문헌정보학 이론의 효율성과 활용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김현희. 2012. 이용자 태그를 활용한 비디오 스피치 요약의 자동 생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46(1): 163-181.
- 박희진. 2011. 폭소노미에 따른 웹 분류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89-210.
-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1-42.
-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 2001년~2010년 발행 석·박사 학위논문들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33-353.
- 오세훈, 이두영. 2005. 우리나라의 정보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167-189.
- 이지수. 2013. 그룹 연구 과제에서의 협동적 정보행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97-117.
- 임여주. 2012. 학습만화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사서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341-360.
- 정동열, 김성진. 2003. 문헌정보연구의 이론 활용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0(1): 165-198.
- Babu, B. R. 2011. "Relevance of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in the Contemporary Library Wor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53-269.
- Connaway, L. and R. Powell, 2010. *Basic Research Methods for Librarians* (5th ed.). Santa Barbara, CA: Libraries Unlimited.
- Grover, R. and J. Glazier. 1986.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ory Build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8(3): 227-242.
- Järvelin, K. and P. Vakkari. 1990.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2(4): 395-421.
- Järvelin, K. and P. Vakkari. 1993. "The Evolu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5-1985: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29(1): 129-144.
- Julien, H. 1997. "A Content Analysis of the Recent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8(1): 53-65.
- Julien, H. and L. J. Duggan. 2000.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Information Needs and Uses Literatur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2(3): 291-309.
- Julien, H., J. Pecoskie, and K. Reed. 2011. "Trends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1999-2008: A Content Analysi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1): 19-24.
- Kumar, S. K. A., B. R. Babu, and P. N. Rao. 2011. "Implications of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on Dr. S. R. Ranganathan's Colon Classification: an Explorativ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309-326.
- Kumasi, K. D., D. H. Charbonneau, and D. Walster. 2013. "Theory Talk in the Library Science Scholarly Literature: An Exploratory Analysi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 175-180.

- McGrath, W. E. 2002. "Explanation and Prediction: Building a Unified Theory of Librarianship, Concept and Review." *Library Trends*, 50(3): 350-370.
- Na, Kyoungsik. 2014. "Exploring the Effect of Mental Demand in Web Searches: A Pilot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379-398.
- Pettigrew, K. E. and L. McKechnie. 2001. "The Use of Theory in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2(1): 62-73.
- Takeuchi, S. 2011.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from a Japanese Ang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87-295.
- Todd, R. J. 2010. "From Information to Knowledge: the Information Literacy Conundr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131-153.
- Tuomaala, O., K. Järvelin, and P. Vakkari. 2014. "Evolu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65-2005: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5(7): 1446-1462.
- Yoon, Cheong-Ok. 2011. "Five Laws and Libraries in Korea: Are We in the Right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297-30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eong, Dong-Youl and Sung-Jin Kim. 2003. "An Analysis of Theory Use i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 165-198.
- Kang, Mi-Hee and Jeong-Hyen Kim.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 Kim, Hyun-Hee. 2012. "Investigating an Automatic Method in Summarizing a Video Speech Using User-Assigned Tag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163-181.
- Kim, Sung-Jin. 2004. *A Study on Efficiency and Use of Theory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h.D. diss., Ewha Womens University.
- Lee, Jisu. 2013. "Exploring Collaborative Information Behavior in the Group-Based Research Project: Content Analysis of Online Discussion Foru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97-117.

- Lim, Yeoju. 2012. "An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chool Librarians on Educational Graphic Nove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341-360.
- Oh, Se-Hoon and Too-Young Lee. 2005. "Research Trends of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1): 167-189.
- Park, Hee-Jin. 2011. "A Qualitative Exploration of Folksonomy Users' Tagg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89-210.
- Sohn, Jung-Pyo. 2003.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9~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21-42.
- Song, Jung-Sook. 2010.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33-353.